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생명을 지키는 지역 먹을거리



국령애

현대병은 어디서 오는가. 궁극적으로 식생활에서 온다.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식보혈육'(食補血肉)처럼,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은 대부분 피와 살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밥상을 지나친 육식과 패스트푸드에 내주고 말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피가 탁해지고 비만으로 인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죽음에 이르는 병에 시달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피와 살에 관한 병으로 집약되는 현대병의 원인은 결국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재갑 서울대의대 교수는 "21세기는 혈액검사로 암을 진단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피가 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암은 식생활의 혁명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녹색식품을 많이 먹고

살아왔다. 오곡을 골고루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쌀 한 종류에 의존할 뿐 아니라 외국산 식품이 식탁을 메운다. 인체의 생리구조나 토양성분이 다른 외제식품을 먹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사람에게 성인병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건강은 생활의 기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품성을 결정해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국가적으로는 민족성을 결정해 민족의 앞날을 좌우하기도 한다. 로마의 멸망 원인이 육식과 폭식에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먹을거리 산업이 전 세계적인 미각을 관리하면서 각 민족의 고유한 섭생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의 먹을거리는 수천 km를 이동해 온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파, 당근, 마늘, 생강은 중국으로부터 9000여km를 이동해 온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와 양배추는 8000km 이상을, 미국산 오렌지는 9600여km를, 칠레산 포도는 2만 km를 이동해 온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먹을거리가 대

부분 원거리를 이동해 온 것이다 보니, 입속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맛을 만하면 중국산 먹을거리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가 먼 탓이기도 하다.

원거리를 이동하는 먹을거리는 지역의 먹을거리로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먹을거리(local food)는 일반적으로 '제철에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반경 50km 이내로 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운전해 갈 수 있는 거리(250km)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먹을거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가족경영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도시농업도 뿌리내리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재 농촌에 남아 있는 고령인구의 대를 이어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세대들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밴쿠버는 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010년까지 밴쿠버 시내에 2010개의 공공텃밭을 만드는 계획을 실천하였다. 조사가 따르면 밴쿠버 시민의 44%가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먹을거리를 텃밭에서 직접 가꾸어 보았다고 답했다. 텃밭 한쪽에 거름통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해 내는 자연순환농업도 눈에 띄어 볼 부분이다.

밴쿠버의 식량정책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텃밭에서 기른 먹을거리를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은 공공보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텃밭을 가꾸어 얻어진 지역먹을거리를 저소득층과 나누는 푸드셰어(food share)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텃밭 가꾸기가 활성화되어 지역먹을거리와 가족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사회적기업 공생미 대표·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선생님들 인권, 학생인권에 치어서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니 심히 유감스럽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동안 발생한 전체 교권침해 건수 13건 가운데 지난해 9건에 이르며 전남에서도 교권침해 사례 18건 가운데 지난해 16건이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일부 사·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논의의 과정에 교사와 학부모·교육관계자 등은 교권의 확립과 학생인권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교사가 수업이나 지도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인권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과 대처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시한 학교·교육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어떤 양태의 교내 폭력도 이성적이고 교육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계상황 다다른 가계빚 대책 시급하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 폭이 커 빛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정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 2분기에 7만4080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나 증가한 것으로, 가계 전체 소득 가운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급증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20% 가구의 이자 비용은 무려 40.8%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가계 빚 부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계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은 빚이 그만큼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총 가계부채는 90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과 사금융 부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계 빚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계 빚 증가 속도다. 지난 1분기에는 가계부채가 월평균 3조5000억 원가량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는 6조3000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가계 빚이 빠르게 증가하자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2분기에 7만4080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나 증가한 것으로, 가계 전체 소득 가운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급증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20% 가구의 이자 비용은 무려 40.8%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가계 빚 부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금융부채→가계 빚 부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계 빚 부담이 늘어난 것은 빚이 그만큼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총 가계부채는 90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과 사금융 부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계 빚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계 빚 증가 속도다. 지난 1분기에는 가계부채가 월평균 3조5000억 원가량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는 6조3000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가계 빚이 빠르게 증가하자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2분기에 7만4080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나 증가한 것으로, 가계 전체 소득 가운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급증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20% 가구의 이자 비용은 무려 40.8%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가계 빚 부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중고칼럼



박덕규

이번 여름엔 유난히 비가 오는 날과 흐린 날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을 기다리는 내 마음 한쪽엔 햇살이 비치는 맑은 날이 그리다.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나니 벌써 가을 기운이 느껴진다. 이제 머지않아 더위도 한 풀 더 수그러들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우리를 반겨 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들보다 빠르고 바쁘게 살아야만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며,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으로

홀로 가만히 있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막상 바쁜 일상을 놓고 쉬는 시간이 없게 되거나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없을 때에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 구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볼과 맞닿은 전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물질의 발달로 우리들은 홀로 가만히 있는 시간을 물질로부터 빼앗겨 버렸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홀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기 어렵고 자칫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데 뭘 말이나고.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있다. 물질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고 풍족해 지면서도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공허함, 상실감 등을

느끼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속에 행복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원불교 경전 첫머리에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행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과관고(고통이 많은 우리의 세계를 칭)가 없으리오." 라는 법문이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다.

이는 물질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그 물질의 세력을 행복 받아 물질을 선용(善用)할 수 있을 때 평화 안락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홀

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가끔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로토 있었더라는 말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곤란하다.

홀로 가만히 있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거나, 깊은 호흡을 해보거나,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해보거나,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함을 찾아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돌리고자 노력해보자는 것이다. 또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보고 느껴보거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 반성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 물질의 세계에서 떠난 나는 자신을 정신의 세계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다.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의외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가끔씩 하기만 하면 단순하고 쉬운 이 방법이 우리의 인생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득을 안겨 줄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것 외에 삶을 더욱 평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행복을 선사해 줄 것이다. 실제로 하기만 하면...

<원불교 서경수교당 교무>

기고

장회국 교육감님, 보세요!



윤순남

장 교육감님,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율이 25.7%에 그쳐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현장에는 교권과 학생 인권, 반값 대학등록금, 일제고사 찬반, 교사 처우개선과 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교실 풍경 또한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법대로'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칼럼에서 "교실 붕괴상황에서 사소한 벌도 주지 못한다면 교실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고, 교단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다"라고 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

다. 교육의 목적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찾기 위한 것인가? 게다가 교육당국은 영어 비중을 높이고,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도록 하더니 이제는 2015년까지 '스마트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양질의 교육이란 교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은 버려둔 채 각론만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는 마치 위암환자가 속이 메스껍다고 소화제를 먹고, 어두운 얼굴색을 화장으로 치장하는 격이지요.

우리가 옛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만 그 시절의 따뜻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협동과 나눔 그리고 아이들 인성교육의 장이었던 마을 공동체는 사라진지 오래고,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마저 해체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금, 윤리와

도덕교육은 오직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 교육감님, 학교에서는 최소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정도는 각인 시켜주고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마저 인성교육을 등한시 하면서 교실에서조차 도덕관념이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엔 살인사건이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그 고을의 수령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윤리와 도덕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교사를 또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하고서 다른 무엇이 성공한다고 한들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 것인가는 생각할수록 일입

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인성 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수업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생 모두가 학교공부에만 매달리게 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개성교육을 한다 면 서두에서 언급한 문제들도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과잉 노출이나 선정적인 포장을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중앙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에 달려있겠지요.

다행히 지난 6월 30일 장교육감님을 비롯 전국 시도의 진보교육감 여섯 분이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낼 민간 독립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좋은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가>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로등만이라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나주 시민들이 공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나주를 사랑합니다.

▲유령재·나주시 삼영동

無等鼓

천일염의 고장 신안에는 소금과 관련된 문화재가 3곳이나 있다. 증도의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비금도의 대동염전이다. 태평염전은 1953년 6.25 전쟁 이후 이북의 피난민 정착을 위해 서로 떨어져 있던 증도의 두개 섬을 연결, 그 사이 갯벌에 조성했다.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만㎡)로 직접 염전 체험도 할 수 있고 인근 소금박물관에서 소금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있게 습득할 수 있어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동염전은 1948년 450세대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곳으로, 설립 당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비금도에는 천일

염전 기술자 양성소가 있어 여기서 배출된 기술자들이 영광, 해남 등지의 천일염전 조성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염전발전에 기여했다.

국내 염전 면적의 절반 가량을 보유한 신안은 국내 천일염의 65%를 생산하고 있다. 폭을 넓혀 보면 전남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87%를 점유하고 있

다. 영광 굴비가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맛을 결정하는 천일염 덕분이다.

전남의 천일염은 2008년 3월 법적 지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면서 관련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소금이라는 프랑스 제랑드 천일염보다 나트륨 함량은 7~8% 적으면서도 몸에 좋은 마그네슘·칼슘·칼륨 등 미네랄 성분은 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일본 대지진 여파로 전남산 천일염은 재고도 모두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유학과 출신의 30대 젊은이가 가업을 잇기 위해 고향인 신안에 내려온 것도 천일염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종양일간지의 농약 살포 의혹 제기로 천일염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보도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차체에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소금의 위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천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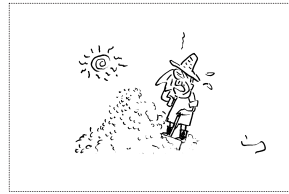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로등 꺼진 영산강변 체육공원 운동·산책 못 즐겨

저는 나주 삼영동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영산강 쪽 바로 밑입니다. 영산강변에는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는 아플답게 잘 꾸며진 1200m의 트랙과 40여 종류의 운동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일등 나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원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언제부터인가 어두운 공원이 돼 버렸습니다. 밤이면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빛을 밝혀주던 가로등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밤이면 공원을 찾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나주시에 바랍니다. 시민들이 운동을 하